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병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8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2. 12.

발 의 자 : 안병길 · 구자근 · 권명호
김선교 · 김희곤 · 류성걸
박대수 · 백종현 · 유의동
이종배 · 이종성 · 이주환
최춘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선사, 하역사, 화주, 항만서비스 업체간 다양한 방식과 조건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하고 있으며, 별도의 정형화된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전자메일 또는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화물손상, 일정 지연 등 작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도 당사자 간 계약조건의 해석이 상충하여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.

이에 불공정한 계약 관행 타파, 작업분쟁 감소 등 산업계 지원을 위해 항만운송(관련)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를 도입하여 배상책임, 부당거래 요구 금지 등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도 정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당사자 간 의무사항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(관련)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(안 제27조의5 및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).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5(표준계약서의 보급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

②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소관 사업에 대한 도급, 용역,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한다.

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7조의5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표준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도급, 용역,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계약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7조의5(표준계약서의 보급 등)</u></p> <p>① <u>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소관사업에 대한 도급, 용역,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3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4조(과태료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27조의5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자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